

전학대회 대중적 학생회 역량강화 절실

개정 학생회칙, 중앙운영위서 학자투등 배제

92년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각단위 학생회장 등 전체대표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간에 걸쳐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전학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총학생회칙 개정안 의결 △학생회비 인상 △총노선 채택을 비롯해 5월부 정계획 결의, 총학 집행부 인준 등이다.

총학생회칙개정안은 4개부분에 걸쳐 논의됐다. 개정방향을 보면 △대의원 총회의 의결 정족수 축소 △학자투, 교과위, 학부위, 출준위 등 특별위원회 기구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출범방식은 위원회 자체주요에 위임 △단과대 학생회장의 임후보 자격을 기존의 6학기에서 4학기로 완화 △4개특별기구 위원장의 중앙운영위원회 참석의 동을 다루고 있다.

먼저 총대사건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 현실적 학내 학생회 상황을 고려해 의결 정족수를 1/3로 축소하는 부분에 제정인원 98명중 60여명참석, 3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한 특별기구의 운영과 참석제에 있어서는 찬성 36명 반대 26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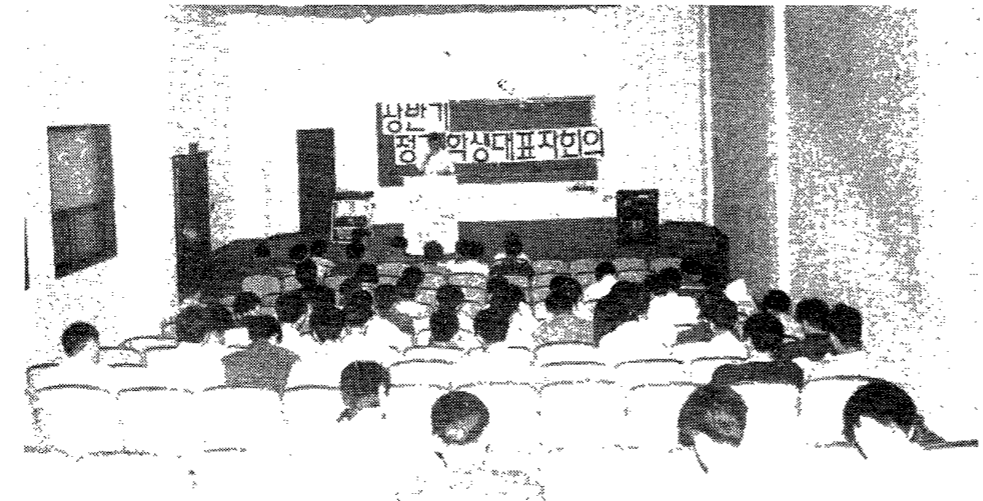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논의과정상 많은 이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대의원 총회의

의결 정족수 축소는 아무리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다지만 효율적 측면보다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별기구의 운영위 참석제에 대한 부분은 특별기구의 위상자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시적 일상사업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사안별로 분리, 진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학자투의 관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학생회비 인상안부분은 사전논의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학대회차원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후 각 하부단위부터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 오는 2학기 전학대회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학대회의 쟁점으로 상정된 총노선 채택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자들의 인식부족과 하부단위의 실질적 고민의 부재로 무수한 내용이 오가는 공방전을 벌였지만 총노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학내 정파간의 이질감등 학생회의 위상을 제정하면서 학생회 강화추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뤘다.

이전 전학대회는 대표자들의 고민과 열의부족으로 실질적인 내용적 측면을 담보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전학대회는 실질적인 총노선을 채택하지 못했다.

다. 지난 투투당시 비상 전학대회에서도 드러난 문제지만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회의진행의 미흡등으로 전학대회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생회의 실정이다.

전학대회가 대중적 학생회를 위해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로 정착돼야 한다는 위상에는 대부분 공감하던 것도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 이와같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학대회의 일정이 대중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데다 자료집이 당일대회에 임박해 배포되는 등 사전준비의 부족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학대회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학대회에 대한 인식미비와 홍보부족, 대표자들에 대한 사전교양의 미비로 학내·과총회 등이 선행되지 않아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안건처리과정에 있어 정확한 원칙 부재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전학대회가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면 학생회 사업의 결정과정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보장, 시

급하게 제기되는 주요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의·집행, 총학생회 사업계획의 대중적수립과 집행부인준으로 전체학생이 주인되는 학생회 건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학대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대중적 학생회의 비약적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전학대회의 보다 높은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준비·진행과정에 있어 충분한 사전계획과 학생들의 의사수렴을 위한 각급단위 총회를 지휘하는 자제가 현 동약 대표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조인환 기자)

재단, 동국발전위원회 구성키로 학교발전 장·단기계획등 수립할듯

재단은 지난 6일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과 학교당국이 주축이 된 가운데 동국의 자주적 중흥을 위한 발전안들을 연구·기획할 동국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측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는 재단이사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아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재단 사무처장, 재단이사 4명, 감사인등으로 구성하며 학교당국에서는 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구성원이 돼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조만간 구성될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재단 수익사업체의 재산·시설·설비·재무구조 및 기타 일반현황등 세부항목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나아갈 전망이다. 이처럼 재단측에서 주축이 돼 학교발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점은 이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위원회구성에 대한 언급은 오복원이사장이 지난 7일 개교 86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바 있어 이의 구체적인 작업의 착수는 결산이사회가 예정

돼 있는 이달말에 공식화될 전망이다.

임기만료 감사 유임 성적평가 형평 지적

제115회 재단이사회가 지난 6일 열려 92학년도 예산안확정과 임기만료 감사선임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2학년도 예산안 총4백77억원에 대한 심의후 총액의 변동없이 세부항목만 약간 수정돼 확정됐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모두 유임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 정기감사 보고회도 결한 이사회에서 교수들의 성적평가가 형평에 맞거나 평가의 변별성에 문제가 있음이 심각하게 지적됨에 따라 학교당국은 학업성적평가와 관리에 엄정성을 확보할 후속적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교육대개혁 힘몰이대회

복직·노조인정 관철 투쟁 결의

‘교육민주화선언 6주년기념’과 ‘해적교사 복직 및 교육대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힘몰이대회’가 지난 11일 본교 중앙강당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위원장 김민준·서울사대부교 해직)원·해의 교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교사들은 ILO기초조약비준과 함께 공무원노조, 복수노조의 인정을 통해 정권의 전교조탄압에 대한 부담감을 알리고 해적교사의 원상복직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향후 투쟁제언을 통해 현정권은 이미 교육개혁

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국민들과 현·해적교사들의 노력으로 교육대개혁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전교조, 교총, 교육부3자가 참여하는 교육대개혁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속적인 대화의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그에 따른 실천적 대응으로 이날(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작업과 6월중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보건진료소 X-Ray 검진 실시

보건진료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X-ray 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검진장소는 보건진료소 방사선검사실이며 결과는 오는 25일 이후 통보할 예정이다.

보수

우리 나라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사람의 이름 위에 석(釋)자나 승(僧)자를 붙여 석원호(釋元浩)나 승일연(僧一然)등으로 적어서 스님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국사(國師)나 왕사(王師)·대사(大師)라든가 월명사(月明師)·충담사(忠談師)·진정사(眞定師)와 같이 그 사람의 이름 뒤에 스승 사(師)자를 붙여서 부를 때도 있다. 이때에 스승이라고 한 것은 모두 스님들을 일컫는 말로서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 될만한 승려를 말하는 것이요, 왕사는

국왕의 승려 스승, 월명사는 월명 스님 등을 가리키는데, 이는 스(승)님이 줄여서 스님 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는 승(僧)님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다.

이외에도 불교에서는 스승

사람에게 그 작법과 규범을 지도하는 승려인 교수 아사리(阿梨; ācāra)에서 온 것이 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아사리를 옆에서 시종들이 공양하면 부처와 이익을 얻는 것이 마치 눈과 발

에서 곡식을 내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아사리(田)이라고 하여, 여덟 가지의 복건 중에서 부모와 함께 은혜의 밭【福田】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군사부(君師父) 일체(一體)라는 말이 나왔을 것으로 추측되고

또한 존경하는 뜻에서 스승과 제자의 자리 사이에는 한 길【一丈】 정도의 여지를 둔다는 의미에서 스승을 함정(函丈)이라고 받들기도 했다.

가장 훌륭한 선생은 제자를 편케 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제자는 선생을 편케 하는 학생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편인케 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안심(安心)시키는 것인데,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인간 신뢰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스승인 화상이 화상(畫像)이 되지 않아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능가해서 스승의 명성을 드러내는 청람덕(靑藍德)을 쌓아야 할 것을 스승의 날에 생각해 본다. 李 萬

장학금 지급내역 발표

2천6백여명 14억원 수혜

92학년도 1학기 교내의 장학금은 총 수혜자 2천6백23명에 모두 14억4천7십2천4천9백5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과의 발표 내역에 따르면 교내장학금으로 입시성적 우수장학 6백48명, 성적 우수 장학 6백40명, 학생회 간부 장학 3백53명, 근로장학을 비롯한 특수장학 5백 38명등에 해당하는 2천2백96명의 학생에게 13억2천3백1십1천4천4백50원을 지급했다.

또한 교외장학금은 공공법인에서 지급하는 4백6십3천3백원, 장학재단 8천7백9십3천511백

원, 동문화 1천1백27만6천8백원, 기타 여러곳에서 1천3백7십9만5천6백원등이며 이로써 1백27명이 총1억1천7백6십1만5백원의 장학혜택을 받았다.

김창수 교수 회갑연 및 봉정식

김창수(역교·사범대 학장)교수의 회갑연과 기념논총인 '역사학의 체문제', '한국민족특립운동사의 재문제'봉정식이 오는 15일 오후6시 엠베서더 호텔 대연회에서 열린다.

정문직필의 그 한 길로 지령1100호 기념

어제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정신 그 전통으로...

1950년 4월15일 창간

1988년 9월13일 지령1천호

42년의 동대신문 역사속에는

창간 당시 6·25를 비롯해

4·19, 5·16, 6·3, 5·18, 6·29등등

실로 엄청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80년대 초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도

붓을 꺾을 수 없다면

지령 1100호 기념 사업

1. 제30회 고교문학 콩쿠르 개최

2. 제7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3. 보도 사진전 개최

4. 속쇄판 6·7권 제작

5. 전국 대학신문 전시회

그래도 민족의 내일은 밝다며

초동거리를 거닐던 선배기자들의

그 정신, 그 뜻대의 전통은

오늘 지령 1100호로 이어집니다.

작은 소식 하나도 놓칠 수 없다면,

140자 1매에도

사실이 아닌 진실을 새기고자 했던,

어제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정신 그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 가장한 92년형 이미지 전술

92 대선을 향한 정치세력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15일 국민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19일 민주당, 27-2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권후보를 확정짓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민주당의 자유경선등 어느 대선보다 새로운 형태의 전술이 구사되고 있으며 갈등과 내분으로 인한 집권당의 '약세'는 민족민주운동전열에게 커다란 역할을 부여한다. 이미 대권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5명. 그리고 민권당은 92대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총선결과분석 등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92년 정치상황은 87년 대선때보다 더 악화됐으며 민권당의 통일단결, 92년형 전술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민주당·야당의 대권 전략을 살펴보고 현시기 민권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3회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실는다. (편집자)

92-93년은 큰 격변기에 선거 일정을 통해 한국 권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를 갈망하는 4천만국민에게나,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 서고자하는 민주당에게도 운명을 건 심판의 시기인것만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행보는 총선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해갈 것이다.

바야흐로 권력의 내란을 위해 마지막 피치를 울리고 있는 중이며 이 때만큼은 복잡다단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우리의 추측을 쉽게 할 수 없게하는 어려움까지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는 92년의 민주당의 총괄 전략과 총선이후 변화된 양상, 그리고 향후전망을 간단하나마 서술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92년 총괄 전략

90년 민주당 합당때부터 민주당의 근본적 정치목표는 보수대연합의 제도적 완성인 내각제개헌추진에 있었다.

그것은 내각제자체가 보수연정의 다수화를 구조화할 수 있는 점과 지배에 따른 방법으로서 제도적으로 완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 재창출의 목표에 따른 방법으로서 는 대안이 좋은 표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92년 들어서도 변함은 없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 가능성을 점차 높였고, 총선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총선에서 내각제 합의가 용의한 민정, 공화계가 개헌정족수 2/3 이상을 확보하면 내각제 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상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3선상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합치라도 선거의 분위기가 민주적 과정인 통일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주도성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과 함께 통일지향이라는 명목하에 보수대연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체의 정세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였다.

첫째로 총선이후 내각제 동진정인 2/3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김영삼 혹은 김대중 중 한사람이 총선결과에 낙담하여

이러한 동상이몽형태의 민주당의 잠재성은 총선결과에 따라 언제든 지 폭발할 수 있는 성격이었고, 최종적판결은 폭발가능성을 지닌 채 총선후로 일단 미루게 된 것이다.

총선의 참패 - 흔들리는 대권 전략

14대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정·민주·공화파의 지지를 합친 3당합당 당시의 지지율 77.1%의 절반정도인 38.5%획득에 그치게 되며, 의석수도 수도권, 중부권에서의 참담한 패배와 함께 과반수의석에도 못 미치는 149석을 얻는데 그쳐, 민주당 자체내에서는 새롭게 전략을 수정해야하는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60%이상의

92 대선을 전망한다

1) 민주당의 자유경선

상설과 YS발달설등은 민주당 존재 위기와 함께 새로운 방향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되었다.

이른바, "5월전당대회실시, 대권 후보 자유경선"이라는 집권여당의 신선한 정치적 제스처이로써, 총선 민의에따른 책임추궁의 국면을 차기대권후보선출의 국면으로, 발빠

민주당 현실의 교육적책이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볼때, 민주당의 자유경선 실시는 대권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와, 김영삼과 민주계를 그때까지 집어두어야 하는 현실에서 출발한 새로운 제정의 구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목표와 현실의 차이는 가능성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현실로써 가시화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총선을 통해 지역적 고립성이 더욱 고강화된 김영삼의 현실이 대선에서의 득표제고에 심각한 고려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중간의 입지보장은 또다른 김영삼의 돌출행동을 낳아, 민주당 자체파벌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게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대선승리와 김영삼을 민주당내 묶어두어야하는 서로 상충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의 경선출마 선언은 총선패배의 책임소재 시비를 재빠르게 대권부위로 옮기기 위한 '선수'였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선전효과를 자유경선이 주는 이득도한 않다.

3가족 동상이몽...흔들리는 대권전략 재집권 위한 광범위한 부정 잇따를듯

이에반해, 민주당의 또하나의 지류인 김영삼과 민주계는 내각제개헌원동불가의 입장이었다. 그것은 김영삼과 민주계가 자기들만의, 대권주자가 없다는 것과 여권의 조직력을 가동하면, 대선에서 질 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김영삼 대통령만들기의 현실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는 권력부쟁과정에서는 갈등과 내분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였고, 민주당은 재차제의 위기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4차회담을 통해 '내각제요소'를 가미한 권력분점, 김영삼 대표중심의 총선대차, 그리고 총선후 전당대회에서 자유경선을 영감 대권후보결정'이라는 기본원칙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민주당파의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된다.

의석획득이라는 목표자체를 완전히 빚나가는 정치적 패배였다.

이런 결과의 내면에는 '구국의 결단'이니 하는 3당합당 명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거부감과 합당후의 민생의면, 낯지기과등 민주당행태에 국민적 정서의 심판이 존재하였었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는 대권선거에서 또한 재현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민주당 자체의 대권전략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국 총선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92년도에 내각제실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되었고, 총선의 위상을 백지화 하고 총선패배에 따른 책임추궁으로 인한 내분과 갈등양상은 회복불능상태의 정치적 한계에 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상품 개발 - 자유경선 총선패배로 인한 당내의 구실점

트게 전회시키는 신속한 행보를 하게 된다. 그럼 민주당에서 자유경선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첫째로, 민주당이 특별한 변수와 자기혁신의 의지가 없는 한 대권에 서도 국민적 정서는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민주당 나름대로의 기복(?) 상황판단이었고, 둘째는 집권여당에서 처음 실시하는 자유경선이 모양 좋게 치루어진다면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을 반전시켜 대선에서 득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셋째로는 자유경선의 명분으로 결집하면 발당을 부르짖는 김영삼과 민주계의 발목을 묶어놓을 수 있는 유력한 방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용 상품으로 6·29선언에 버금가는 새상품을 만들어내야하는 촉박한

는 계파간의 연합에 의한 새로운 해결책 또한 모색되어, 놓칠 수 없는 대선승리를 위해 전열정비의 과정 또한 가속화될 여지도 존재한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변화하는 민주당 모습속에서 변화할 수 없는 사실 또한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의 허울을 쓴 자유경선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식상함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대권 후보에 어떤 후보가 나설지라도 민주당의 권력재창출에는 어려움이 많아 광범위한 부정기 따를것이라는 점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부정때문에 또 하나의 부정을 계속 낳는것처럼.

◇법집행의 현실과 형법개정

국민의 행복보다는 국민의 억압에 관심이 있는 정치권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카프카의 소설 '심판'의 주인공 요제프 K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수사기관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숨어있는 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정치권력이 이맛살을 찌푸릴 만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이 시대가 자신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구속과 고문에 대한 두려움이 남다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와 수사기관에서의 인간적 대우는 형리우드가 만들어낸 싸구려 수사영화에나 존재할 뿐인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서, 법률이 개선된 개악된 현실적으로 침체되는 인간의 권리에 별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 아래에서, 그레도 공부께나 했다는 검사나리가 영장을 발부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법률을 바 꾸었다는데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 으냐고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러한 자유로운 인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무부가 내놓은 새로운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내용중에 검사가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해 48시간 동안



를, 위와같은 파행적인 수사관행을 뿌리뽑고 그동안 활동이 극히 저조했던 긴급구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구속의 요건 중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검사가 발부한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여 구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탈법적인 관행의 주체는 바로 법무부가 지휘하는 수사기관 자신이며, 이러한 자신들의 관행을 반성할 생각이 안하고 그것을 기회로 아예 합법화시켰다는 발상은 안팎이 안맞는다. 앞

중요한 건 법현실 개선

인권침해 '다반사'인 수사관행 범죄발생의 사회적 모순부터 고쳐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긴급구속제도'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그 효과를 예측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뒤에는 다시 바꾸기 어려운 것이 또한 제도인 것이다.

긴급구속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라는 사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구속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수사관행은 대부분 일단 영장없이 피의자를 연행하거나 소환하여 조사한 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제셔야 구속영장의 발부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의 구속은 보호실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처리되어 왔다. 경찰서 보호실을 호형처럼 꾸며놓았을 지라도 스스로 들어가 있으려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이처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있는 사람을 영장 없이 강제로 48시간 이내에서 보호조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므로 구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었다. 그리고 공안사범의 경우에는 수개월씩 불법구금하고 수사를 진행해도 많았던 것이 과거의 현실이다.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는 말하

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긴급구속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장기 3년 이상의 죄라하면 대단히 심각한 죄인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 다름아니다. 결국 긴급구속제도는 기존의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속의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고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도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국민의 의식속에는 수사기관이 인권침해의 온상이며, 정치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잠재적 범죄집단이라는 생각이 뿌리깊이 박혀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통한 범죄의 감소와 형사법기관의 일정한 정치적 중립, 그리고 민주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완비를 통한 인권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것을 법무부를 포함한 정치권력의 담당자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조 광 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형법학)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 일 - 선점이 하고 있습니다.

선점은 국내 최초로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지질적특성에 맞는 이동통신망 설치를 위한 지형 시뮬레이션 작업

선경텔레콤 기술기획팀 대리 이 경 수

“21세기 통신혁명을 준비하는 정보통신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준비하는 21세기

사 무질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어느새 밤9시를 향하고 있지만 US셀룰라사와 함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네시주 이동통신사업의 현황분석을 위한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통신시장에 진출, 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술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에 회의의 열기는 더해간다. 2000년대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정보통신산업,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 설계 및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담당으로서 나의 목표는 이미 신입사원시절부터 구체화되었다.

3년전, 국제적 안목과 패기 함양을 위해 참여한 신입사원 해외직접훈련 - 식민지의 상처를 씻고 새롭게 변모하는 동남아의 모습 만큼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시장진출 현황이었다. SONY, IBM의 상표가 낯설지 않듯이 그곳은 이미 선진국들의 경제적 각축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우리의 기술로 동남아에 정보통신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그날을 다짐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89년 해외직접훈련 참가자 포즈에서에서 지사원들과 함께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 선경인드스트리(주)SKC 세라믹위커(주)선경건설(주)유공 유공해운(주)유공가스 유공아코화학(주)유공공사

기획시리즈 4번째

재단의 재정과 수익화 방안

"잠재력 자랑 말고 발벗고 나서라"

등록금투쟁이 마무리된 지 한달여가 지났다. 합의사항중 주요한 몫이었던 등록발전위원회구성이 여실히 가시화되고 있다. 등록금 3% 단위복지투자도 빠져버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5월정세와는 또다르게 전반적으로 학교분위기는 조용한 듯 하다. 정세감인지 아니면 구체적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인지 두고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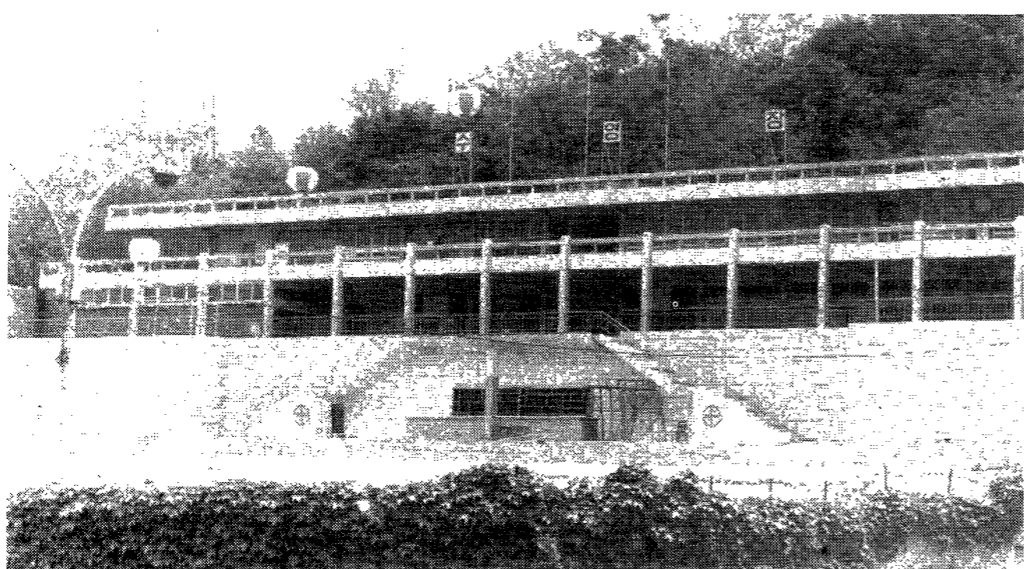
하지만 등록금합의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직원임금인상, 향후제기될 경주부총장 선임 교수회장선출등 급박한 사안들이 뚜렷한 방향 없이 전개되고 있다.

등록금투쟁과정에서 다수의 동국인들이 의견을 함께한 부분이 있다. 바로 등록발전은 재단에 있다는 사실이다. 88년 이후 학원자주화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올해 등록금투쟁 과정에서 재단혁신에 학자투의 초점을 맞춘 것은 또한 하나의 성과일 것이다.

이제까지 재단혁신은 '소위에 경합기'나 '비위에 계란치기' 정도로 인식됐었다. 그것은 재단혁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고 방대한 일을 추진할 주체가 불명확했던 데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시점에서 재단혁신중 재단재정의 수익화방안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방법등을 모색해 보는 의의는 크다.

재단재정수익화 가능성

1천6백여년의 불교역사속에서 86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대학학생수가 50배, 학과가 10여개 증가하고 연구소도 20여개에 이르는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재단인 동국학원도 소유지가 총 9백35만여평이나 되고 2천여명에 달하는 교직원과 1천여예산을 운영 하는 거대한 재단이다. 특히 한국 불교계 최대의 조계종단이 세운 종합대학교로서 갖는 정신적, 물질적 잠재력은 무한하다. 학교전통만큼이나 인적자원은 풍부하게 우리학교다. 10만명만이 사회각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불교계, 문화계 등 다양한으로 진출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재단의 자산규모는 국내 최고다. 비록 그린벨트에 묶인 부동산 형태로 수익사업으로의 전환이 용이치 않지만, 그것은 재단의 투자지지의 문제라는데 공평한 입장이다. (사진은 재단 수익사업의 하나인 장충 수영장)

전산원-수영장이 수익사업의 전부 그린벨트 묶인땅 교육용시설로 개발해야

인적, 물질, 정신적 토대가 동국 발전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재단재정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그린벨트 등으로 그 수익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교육용자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여하에 제도적 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이 활성화 되어면 수익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많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는 이사와 실무진에 대한 신뢰와 사업공개가 요구된다. 이사와 실무진에 대한 신뢰와 사업공개에 대한 인적자원은 풍부하게 우리학교다. 10만명만이 사회각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불교계, 문화계 등 다양한으로 진출을 거듭하고 있다.

능성을 높이는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수익화방안

재단의 활성화는 수익사업체 운영에 있다. 현재 전산원(학교소유에서 90년 재단이 소유) 수영장이 수익사업의 전부다. 89년 재단에서는 단기사업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빌딩임대업이나 종합레저타운을 세우고 장기사업으로 분당과 성남신시가지에 동국부속병원을 세우기 위해 내인가를 받아 놓았으나 부정 입학사건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이후 90년은 총장선거로, 91년은 재단이사장선거로 재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인 하나 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학교재발행을 추진했으나 규모가 작아 재원확보에 큰 도움을 못 주었다.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화 방안을 수차례 여러방향을 통해 제기했지만 현실화된 것은 전무했다.

다음에 제시된 재단재정 수익화 방안은 꾸준히 고민해야 될 방법상의 하나이고 이를 추진할 재단, 종단, 학생회, 동문등의 구체적 고민 내용이 됐으면 한다.

1) 신촌 봉림사대과과 매각대금 영입
조계종 대교총본부사찰인 신촌 봉림사는 매각액이 대략 1천억으로 평가되는 사찰이다. 이미 매각을 위한 제안조치가 마무리됐고 실현에 박차를 가할 여건을 조성중이라고 한다.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지난 89년 봉림사 매각금을 불교광복회, 승가대, 동국대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재단 관계자와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이 한목소리로 조계종단에 봉림사대과를 요구하고 불교도차원으로 종합학교발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차원에서 봉림사 대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재단이사회와 조계종 중앙총회 소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천호동 7천평부지 그린벨트 해제 정부청원과 기숙사건립 서울천호동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가 있다. 기숙사건립을 목표로 교육부와 국가상대로 그린벨트 해제 청원요구를 하고 건평1천평 수용규모로 기숙사를 세울 수 있다. 건립재원은 신입생 예약, 후원단체 등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여학생기숙사는 전충장 제인시 중문쪽에 매입했던 주택을 기숙사로 개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병원의 경영합리화와 수도권 종합병원 건립 경주병원, 서울-경주 한방병원, 포항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병원의 경영을 재원확보에 최대한의 도움을 주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불교적 특성을 살려 종합병원은 세워야 한다.

4) 동문, 불자들의 기부금영입 유도 86년전통과 조계종대학의 장점을 살려 기부금을 유도하는 방법은 재단이사 중에 재정담당이사를 두고 동문, 불교계와 폭넓은 교류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성에서 제시한것은 그 가능성

을 갖고있는 방안이다. 다음은 불교종립대학으로, 86년전통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재단수익사업을 살펴보자.

- 1) 관광(레저) 산업 전국 9백만명 소유부지중 관광단지조성의 타당지역을 물색, 관광레저단지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강원도 명주군 일대 2백50만평은 외국업자들도 욕심을 부린다는 관광단지 적격지라 한다.
- 2) 급증관련사업 1천만 불교도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 예를 들어 건국대의 건국신용금고는 상당한 이익을 보며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3) 휴양산업 참선, 수도 등 불교적 특성을 앞세워 유료 양로원, 집단휴양센터, 회사교육원등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직영 대입학원, 외국어학원, 기타관련 학과학원운영 학교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의 사

회진출과 관련학과발전을 꾀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5) 수영장의 실내수영장화과 사회체육시설마련 장충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바꿔 사회적 이용하게 하는 사회체육시설을 마련, 임대-운영한다. 사업추진주체의 문제

동국의 뿌리깊은 침체만큼이나 재단활성화의 내용은 반대하고 엄청난 작업이라는 틀림없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학교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단을 이루는 이사진들은 동국인의 기대에 못미친다. 그동안의 행적이 신뢰보다는 불신을 실어준것이다. 재단이사회는 먼저 씩씩한 이사진을 영입하는 인적구조의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 현재 인적구조에서는 학교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영리추구에 안주했던 전철로 담보상대에 머물수 밖에 없다.

동국발전의 장단기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원칙하고 즉자적인 사업은 뿌리깊은 동국침체를 타파할 수 없다. 셋째 재단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감사기등을 회복과 함께 감사내용을 공개하며 재정담당, 취업및 동문담당이사를 두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재원확보여건이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 재단재정수익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사업추진주체문제 의미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학생 자가용 등교 막을길 없다



"학생이 그랜저로 비짓이 학교에 등교하는데 무슨지 않습니까?"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보면 의외로 학생자가용이 소나타, 엘트라 등 고급승용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한 학생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91년부터 시작한 주차단속이 올해 정착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자가용 등교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취업과의 91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본교 주차수용능력은 2백28대, 교수·직원용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이 2백68대로 주차공간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또 하루 업무차량이 30~50대, 불법주차 차량이 하루평균 80대로 (취업과 4월 통계자료) 보다 강력한 주차단속 시스템이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본교의 주차단속은 취업과가 주차단속아르바이트생 8명을 고용, 아침8시부터 오후4시까지 정원에서 외부차량 출입증발급, 학생자가용등교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출입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 교내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자가용 통제를 제외한 외부차량 단속, 교직원차량의 통행스티

자 발급, 견인까지 고려하고 있다. 단국대의 경우 지난해 불법스티커를 붙여 통제효과를 노리려 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올해 경찰서와 연계,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해가는 방안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의 경우 주차단속이 건축법 기준(2백평당 1대, 본교 주차수용능력 3백82.30대)에 못미치는데다 주차공간부족으로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철학과 한 학생은 카본이 부착된 그랜저를 몰고 다니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자차기 구에서 주차단속및 자가용등교차제 홍보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반면 본교는 이에 대한 활동이 전혀 없다. 단지 과천구의 자가용을 같이 타고 다니며 즐긴다.

물론 본교 주차단속의 강도는 서울 시내 대학들 가장 높다는 말이 지나친 과언은 아니지만 자가용등교 통제와 '자체유도'의 제도적 수위로는 그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규제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주차단속 아르바이트생의 단속활동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 학부위, 단대, 과학생의 등 학생들의 조직적 홍보·규제활동

견인등 강력한 단속 피야

주차공간 부족 10부제 운영 고려 주차 단속...학생회 적극 나서야

커 부작상태는 양호한 상태다. 외부차량의 경우 정문에서 출입증을 발부받고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학교관계자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학교출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다. 또 교직원차량이라는 통행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통행스티커 부착도 잘 지켜진다는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얘기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묘한 불법등교는 철저한 단속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통행스티커 불법복제이후 지금은 '교수님을 피려왔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 등에서 이미 정문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주차단속중 학생자가용 등교규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취업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가용 등교자제를 유도한다는 차이에 머물고있어 보다 강력한 통제방안이 시급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생자가용 등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주차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빼앗고 더욱이 접촉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아니라 학생간 위화감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관, 학원관등 대부분의 건물 앞에서 측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로 인한 교수-학생간의 마찰이나 사고 위험이 크다. 교내 통행도 '차량 눈치보며 다녀야 한다'고 호소한다. 일부 자가용족이 같은 친구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학생자가용 등교가 학내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면 비록 견인, 벌금 등의 물리적 행사가 아니라도 학교-학생 공동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회 차원의 차량통제-활동은 오히려 학교측의 대책보다 효과가 크다. 같은 학생들간의 동질성 때문이다. 또 교직원 차량의 증가추세에 따라 10부제의 도입도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시안 중의 하나다. (이병민 기자)

우리 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글 쓰는 차례

1. 우리 재단의 역사와 성격을 바로 알자
2. 재단의 건학이념과 현실
3. 재단을 둘러싼 인맥과 문제점
4. 재단의 재정과 수익화 방안
5. 재단의 제도적 문제

이사도라 던컨,
에디트 피아프,
프랑소와즈 사강,
카미유 클로델,
아름다워지는 일에도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들...



자성의 향기와 함께
아름다움을 가꾸기는 대학생활이 되세요.

넌발의 춤으로
현대무용의 지평을 연 이사도라 던컨,
"장미빛 인생"을 노래하며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에디트 피아프,
프랑스 문단의 매력적인 작은 악마로 불리는
프랑소와즈 사강,
로망의 연인으로 열정의 예술혼을
조각에 담았던 카미유 클로델...

예술에 대한 감각과 자성의 탁월한 향기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 뜨거운 삶만큼 가슴 태우는 사랑이 있었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몰두할 줄 알았던
여인들이기도합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될 대학생활 -
그녀들의 삶이 그려냈듯 자성의 향기와 함께
자신만의 아름다운 빛깔을 가꾸게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
뜨겁고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세요.

아름다움이 있는 대학생활 -
아모레 순정과 함께하세요.
아모레 순정은 17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문학

네번째 | 역사의 소설화와 소설의 역사인식

글 쓰는 차례

1. 도시시의 새로운 정서
2. 대중소설의 대중성
3. 시의 사회적 진실
4. 역사의 소설화
5. 총평

지극히 애매하고 유동적이었던 문학과 역사의 경계선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진정한 역사는 문학을 지향하고 올바른 문학은 역사를 지향한다는 대명제는 세계 문학사에서 어느 나라나 그 민족문학의 최고봉은 역사소설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는 개화기 때 민족의식의 각성과 올바른 현실인식을 위한 역사소설이 여러 형태의 문학 중 가장 돋보였으며, 이런 역사소설이 지난 특성은 식민지 시대와 8·15를 거쳐 분단시대의 갈등과 모순을 인식하는데도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 세계사가 제국주의적

팽창기를 맞았던 20세기 초엽부터 제3세계는 예외없이 각 민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계급혁명과 국가의 자주권을 위한 민족해방 투쟁의 대서사문학의 형성에 걸맞은 역사소설의 창조를 민족문학의 궁극적인 과제로 삼았다.

분단 이후 남북한도 그 이념과 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사는 민족적 대서사양식으로서의 역사소설 창조를 향하여 변증법적인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대식민지 시대의 역사문학에서도 우리는 그 연륜에 비하면 그리 빈곤하지 않은 역사문학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더구나

나 흥명회의 '임격정'은 근대문학사 이래 오늘날까지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평가는 분단40여년을 맞은 지금에도 변함이 없어 남북한을 통틀어 아직도 분단시대의 민족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임격정'과, 흔히 이것과 비교하는 황석영의 '장길산'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남북한은 각자의 시각에서 분단시대를 배경으로 한 많은 역사소설을 창조했는데 한국은 왕실중심사관과 장군이나 학자등 역사적인 지명인물을 소재로 즐겨 다루면서 그들의 인간상 부각에 초점을 맞추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북한은 분단시대의 인물을 재창조하여 당대적 애국성과 민족적 이념을 위한 희생정신에 초점을 맞춘 역사소설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분단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역사소설이 지난 남북한의 접근방법의 차이는 근대 이래 그 시대를 가까이 할수록 민족사적 수난과 민족의식의 발원과 재창조라는 공통성으로

민족수난과 민중의식 재창조로 다가섬

다가섬을 느끼게 되며 이것은 세계 민족문학의 기본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임격정'이나 '장길산'은 분단시대의 권력구조가 지난 모순과 경제사회적인 비민주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돋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적인 역사속에서 민족 공동체의 부각이 모자라며, 근대적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의식의 맹아적 요소 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보완책으로 분단 이후 역사문학은 근대화 과정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시기를 다른 작품은 역사소설의 기본적인 분류법인 가담적인 등장인물을 통하여 민족사적 흐름에 기탁한 가담의 형식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른 대하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번째의 가담의 역사물로서는 대표적인 예가 리기영의 '두만강'과 박경리의 '토지'인데 두 대하소설은 19세기부터 일제 식민지기를 다뤘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두번째의 역사적인 실재사건을 다른 작품으로는 박태원의 '감옥농민전쟁'과 송기숙의 '늑두장군'이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두 작품은 소재로 삼고 있다.

이밖에 근대사를 다른 역사소설로 한국에서는 김주영의 '객주'나 정동주의 '백정' '단야' 등과 북한의 '불멸의 역사총서' 등이 있으나 이 일련의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논외로 삼는다.

'토지'와 '두만강'은 분단시대의 민족사적 대서사문학 중 남북한을 대표적으로 상징할만한 대하소설로 좋은 대조가 된다. '토지'가 경상도 지방의 대지주 최씨주 일가를 중심으로 3대에 걸친 이야기라면 '두만강'은 충청도의 두메산골 송일종의 빈농 박광순 일가를 중심으로 한 3대의 이야기이다. 두 작품은 다 수구파, 친일파, 개화파, 식민정권 시절에 편입하여 무자비로 몰락해 버리는 인간상, 민족해방 투쟁에 투신하는 인물 등을 각양각색의 다양한 인물들을 형상화시키면서 우리 민족근대사의 굴곡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토지'는 당대적 풍속사와 인간 개개인의 운명이 역사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변모, 희생당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만강'은 민족적 생활정서가 외세의 침략과 수탈의 횡행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계급의식을 각성하게 되었으며 그 계급적 연대의 의식이 왜 분단 민족해방 투쟁으로 결집되었는가를 변증법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토지'는 제1부의 풍

체제가 지닌 한계성 때문에 초보적인 지리적 배경의 취재부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근대형 민족해방 투쟁의 정당성과 민족적 정서의 보존을 위한 전통의식, 민중생활의 현상적, 역사적 풍속사의 자료적 보존 가치등등의 업적으로 통일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송기숙의 '늑두장군'은 전통의식 제자 김달주를 주인공으로 삼아 민족적투신양을 그

간과하고 있었다. 즉 일부 양반들의 변혁의지를 뭉개한 신안심으로 풀이하는 경향이 짙었다. 당연히 제국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의 대외관계를 소홀히 다뤘기에 일본 등 침략국에 대한 민족의식이 소홀해지고 농민들의 계급의식을 과소평가했기에 집강소등의 농민주체적인 정치활동 역시 간과한 흔적이 있었다.

송기숙의 '늑두장군'은 전통의식 제자 김달주를 주인공으로 삼아 민족적투신양을 그

의존도를 약간 벗어나면서 봉건사회의 지배-피지배계급의 구조적인 인식을 변혁운동의 기본틀로 삼았다는 점이 돋보인다.

한편 '감옥농민전쟁'은 농민오상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시의 상류층과 국제관계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점이 눈에 띈다. 서울 탈출 주로 했으며 종교적인 이념보다는 농민전쟁에 역점을 둔 사실은 북한의 이념적 경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작품은 '감옥농민전쟁'을 농민전쟁으로 파악한 데 비하여 송기숙은 종교와 농민의식이 결합된 전쟁으로 파악한 점, 박태원이 중의적, 일심계, 환민당 등의 민족조직이 주도한 것으로 본 데 비하여 송기숙은 동학포섭 조직과 두메조직을 그 주축으로 본 점, 박태원은 민중주도로 이 전쟁을 본 데 비하여 송기숙은 당시의 여러 계급이 가담한 동학전쟁으로 풀이한 점 등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근대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문학은 남북한의 이념적 차이를 드러내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역사문학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문학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상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학이란 우리의 경우는 적어도 근대이전(8·15)의 시대적 배경을 그 기본조건으로 하며 그 이후는 현대소설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8·15의 6.25 소재소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직은 정당한 평가를 내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단의 갈등과 모순 극복하는데 한 몫 '토지'...민족 근대사의 굴곡 반영 '임격정' '장길산'...분단시대 권력구조 비판

상사적 접근이 제2,3부의 독립운동사적초점으로, 다시 제4부의 식민지 시대의 생활사로 바뀌고 있으며, 그 가운데 독립운동 세력의 주축으로는 국내외의 항일 무장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두만강'은 만주지역의 항일무투쟁을 민족해방투쟁의 본류로 삼았다는 데서 북한의 역사관을 대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점은 '토지'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두 작품은 분단시대의 냉전

장군과 '감옥농민전쟁'역시 분단시대의 남북한 문학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성격의 한 표현이다. 두 작품은 반외세의 의식의 표현에서 전적으로 일치하는데 이것은 당시 동학농민전쟁이 표방했던 반외세의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전쟁은 그간 역사소설의 좋은 소재로 많은 작가가 의하여 작품화되었는데 대개 그 지배적 배경부파와 화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각종 인간관계 자료와 구전을 충분히 취재 활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농민전쟁의 주된 쟁점인 동학의 종교적인

임현영 (문학평론가)

투고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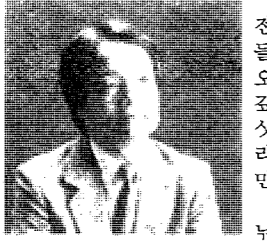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생활이 담겨진 시, 소설, 수필, 풍토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260-3491-2 (문화부)

다람쥐와 가치 얘기

정용길

(사회대 정치의교학과 교수)



이미 10여년 전 한 산악에 들렀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깊은 산으로 낡은 산악을 메고 올라오는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다. 어찌 산으로 낡은 산악을 메고 올라와 싶어 어릴적에 읽었던 삼국지나 무협소설에 나오는 어떤 도사나 기인을 연상해 보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그 낡은 산악을 메고 올라가며를 만들어 산에서 다람쥐를 잡는 사람이었다. 당시의 수을 제일주의를 표방하던 때라 그렇게 잡힌 다람쥐는 그의 타고난 재주인 쳇바퀴 돌리는 일도 할 수 없는 상자에 갇혀 외국으로 팔려 갔다.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첫번째 다람쥐의 수난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다람쥐는 남산에도 많았다. 본교 정문옆에 동국관을 짓자 남산의 다람쥐들이 자주 동국관쪽으로 놀러 왔다. 대학건물이니 무엇을 배울게 있을까 해서인지, 아니면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을 성토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투쟁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동국관 식당에서 식구들과 함께 외식이나 한 번 해보고자 해서인지 자주 볼 수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면 양치바퀴에 나와 놀다가 인기척이 나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면 얼른 쳇바퀴를 돌려서 몸을 숨기는 귀여운 모습에서 어린시절 고향 뒷동산에서 다람쥐를 풀어 놓고 캐논 생각이 나곤 하여 가끔 씩이지만 메마른 도시생활을 잊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다람쥐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 다람쥐들도 낡은 산악에 걸려 어는 나라로 수출되었는지, 아니면 그들 5종의 피해자들로 본교정문에서 자주 쓰아대던 최후의 밤새 때문에 보따리를 싸 가지고 이사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때가 아마도 다람쥐들의 두번째 수난시기를 겪었다.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교수위원 회의의 아카시나무위에 집을 짓고 살던 까치도 이사를 갔다. 교수회관 바로 밑, 그러니까 곧 까치집 바로 아래에 있는 철중사에서 매일 두들겨대는 급속성의 최망치 소리와, 쓰레기소각장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아 어딘가로 떠나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아카시나무위에 다스곳이 지어졌던 그 까치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지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 까치집의 이웃에 있던 연구실을 살때 한쌍의 까치가 열심히 나뭇가지를 물어다 틀어 함께 집을 짓는 것을 보며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만 빈 집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다람쥐와 까치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서둘러 떠났던 동국의 언덕으로 나는 어리석게도 생애계가 바뀐 것도 느끼지 못하고 매일 학문을 한담하고 오르내렸다.

그런데 며칠전 정관원 주위에 설치한 연동위로 다람쥐가 지나는 것을 보았고, 연동위로 날으는 까치의 모습도 보았다. 선정이었고 반가웠다. 필경 최후의 밤새가 사라진 탓이리라. 그리고 사람들의 자연보호운동도 그들을 다시 오게 하는데 한 몫을 하였으리라. 그리고 연동도 무슨 작용인가 분명히 했을 것만 같다.

그러나 이 무슨 심사인가?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사 나는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으니.

東西食品

대전엑스포 '93 공식커피

정상의 이 순간
맥스웰 캔커피

캔커피는 역시 맥스웰!

이루고 싶은게 있다./ 마시고 싶은게 있다./ 정통캔커피-맥스웰

중앙교과위
실문조사 결과

현행 교양강좌, 문제 있다

교과과정 개편시 분리개설, 진보강좌 신설 필요 학생들의 의사 개진과 교과사업 조화돼야

중앙교육과정 학제위원회(위원장=구본원·법학4)는 93년 교과과정 개편에 대비해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실문조사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중앙도서관에 5백부, 각과에 10부씩 총 1천부를 배포해 이중 설문자료로서 유효한 4백89부를 분석한 이번 결과발표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교양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7문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행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강좌다양성 부족(47%), 강좌수의 부족(14%), 강의내용의 질적저하(13%), 시설 및 학습도구의 부족(10%), 강사학습방법 문제(8%)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양강좌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학생들은 세계관·역사관의 인식확대(32%), 지식인으로서 인격도야(26%),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지식 습득(16%), 사회변혁운동 지향(5%)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시각의 확대, 사회변화와 유기적 연결등을 과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과과정에서 구상중인 현행 교양강좌가 1, 2학기 동일하게 개설돼 있는 것을 93년 개편에 맞춰 학과특성과 학의한 차별적 과목으로 분리개설한다는 안에 대해 응답자 78%가 분리개설에 찬성했으며 이는 많은 학생들이 강좌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찬성응답자들은 분리개설과 동일개설을 해야 한다는 요구과목으로 경상계열을 제외한 학과에서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제학인문을 비롯 사회과학방법론, 문학의 이해, 여성학, 컴퓨터·어학관련 강좌등을 꼽았다.

또한 신설요구과목으로 학생들은 종목별로 다양한 체육강좌와 수준별로 다양한 컴퓨터·어학강좌, 생활과 관련된 법률강좌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과위원은 현재 교수처와 협의를 통해 1, 2학기 분리개설과 함께 북한학, 민중불교, 생활체육, 상록의와 강좌 개설을 합의한 상태이다.

향후 개선방향을 덧붙여 응답자들은 현행 교양강좌에 대한 강좌 본래목적과 강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수강인원의 과다, 강사 질적수준 하락, 학생들의 학점위주 수강태도와 강의자의 불합리한 평가등을 지적했다.

한편 실문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교과위원 한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세의 부족과 본 교과위의 즉각적 집행등이 앞으로의 93년 교과과정 개편준비의 과제로 드러났으며 학생들의 의사개진과 꾸준한 교과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교수채용
학생측, 연석회의

올 2학기 신규교수채용과 관련해 중앙교과위와 해당학과 대표자들은 화과심사를 비롯한 원칙정립을 위해 '실무자 연석회의'를 오는 14일 교과위실에서 갖는다.

교수초빙시 학생참여 보장과 채용과정 공개 등을 원칙으로 논의해 별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의 구체적 사업 일정이나 태도와 강의자의 불합리한 평가등을 지적했다.

동국간 증축공간 사용안 함의
법대 자료열람실 요구 수용

동국관(L동) 증축으로 동국관 M503의 활용문제에 마찰을 빚은 법과대, 사과대, 경상대, 야간강좌 4개 단과대는 지난 6일 총학생회실에서 모여 법과대에서 요구한 M503의 반을 나눠 학회공간과 열람실로 사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로서 학회공간으로 사용되던 M503의 반은 다시나누려 하는 법대자료열람실로 나머지는 사과대가 컴퓨터실, 생활도서관, 학생회열람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동국관 증축의 교수연구실 6개가 증축된 L동 5층으로 옮김에 따라 이 공간은 야간강좌, 경상대, 법과대에 각각 2개 공간이 배정되고 안보연구소도 증축된 L동 5층으로 옮겨 이곳을 예습대가 사용하게 된다.

동국관의 열람실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M503을 나누는것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단과대 서로 분열하게되면 향후 학교측과의 공간문제 협의에 있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학복위, 컴퓨터 판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특별 판매소를 다량판 앞에 설치하고 컴퓨터를 특별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번 특별판매에 참가하는 고려, 현주 두 컴퓨터회사는 학복위에서 시장조사를 거치고 단가가격을 산출한 후 뽑은 회사들이다. 컴퓨터의 품질에 대해 학복위 사무국장 김윤현(회계3)은 "에프터서비스는 학복위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며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언제든 반환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주, 휘호대회

경주캠퍼스 동아리 동무회 주최 '제10회 영남지구 고교생 서예실기 대회'가 오는 17일 오전11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서예를 통한 신라문화의 일을 계승발전시키고 영남지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학생과에서 받는다.

한편 실시종목은 한자, 한글, 사군자등 3종목이며 심사는 당일 오후5시에 발표한다. 시상 내역은 총장상으로 대상1명, 우수상3명, 단대상1개, 부총상으로 특선5명이며 장려상7명, 입선등의 상이 있다. 이들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주어진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지난 9일 있었던 반민자당 시위중 이광집 총학생회장등 본교생들이 서울역앞에서 시위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용수 기자)

민자당 재집권 저지 국민대회
서총련 지구별 선전전가져

민자당 창당 2주년인 지난 9일 본교를 비롯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산하 1만5천여 학생들은 곳곳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한편 서총련 학생들은 이날 규탄시위가 끝난뒤 명동성당에 모여 정립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총련 부부장 박기홍(경희대 총학생회장)은 "5·19민자당 전당대회에 총출발해 국민대총들과 함께 하는 대대적 투쟁력을 과시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경 명동에 제정결해 시정적으로 가두진출을 하려했으나 경찰진압으로 무산됐다.

한편 서총련 학생들은 이날 규탄시위가 끝난뒤 명동성당에 모여 정립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총련 부부장 박기홍(경희대 총학생회장)은 "5·19민자당 전당대회에 총출발해 국민대총들과 함께 하는 대대적 투쟁력을 과시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학과소식

불교학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학과 연극 소모임 '수레'는 극연소극장(학생회관 5층)에서 연극 '님의 침묵'을 공연한다.

사학과
과내 소모임 담사위원회는 타대학과 상호교류를 위해 방문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 29일, 세종대·단국대에 이어 제2차로 경희대를 다녀왔다.

화학공학과
오는 17일 92년 화공과대학 대회 및 체육대회를 대우동강과 만해광장에서 갖는다.

사회학과
"등록금 3%인하금의 활용방안, 폐휴지 사용문제, 19일 민자당 전당대회 참가투쟁을 위한 동맹휴업"등을 주요 안건으로 오는 15일 비상총회를 가진다.

사회학과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회는 현대사상조류에 관한 5차발표회중 4번째로 오는 14일 오후4시 동국관 대학원 제2세미나실에서 '미국여성운동의 성향'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되는 현재 영문과 교관교수로 재직중인 케틀라인 워셔(영문학)교수가 진행하고 발표후 별도의 통역안내원이 있어 질의와 응답을 받아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강의실은 넘치지 않는다

○ 강의실의 책상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강의실에 들어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맛살을 찌푸린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집중력은 주위의 정리상태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의실 청결과 정리는 꼭 필요한 선결사항.

이런 무질서함 속에서도 강의실을 듣고 태연하게 정리는 커녕 더 흐트러놓고 가는 학생들의 속은 알 수 없다.

이에 한 학생 왈 "학조성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명심합시다"라며 일침.

앞에 만들어 그래요?

○ 학생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92학년도 등록금부족의 합의사항이 타결된지도 어언 한달이 지났는데...

지난달 14일 등록금 합의 사항 타결로 등록금증 3%가 단과대별 교육환경개선과 학과복지 차원의 특별예산인 10% 편성된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

박상구 동문 의사, 의혹제기 동우탐 앞에서 추모제 열어

본교 박상구(야간 상공 92졸) 동문이 지난 8일 안산부군 상봉수의 근처 개천가에서 의문의 범사건에 발적했다.

유족들 주변사람들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6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성환기계공업사의 동료 직원과 사제발견장사와 10분거리 떨어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10시경 헤어졌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현재 경찰청을 취중 의사로 추정하고 있으나 당시 여러 상황들로 보아 타살로 보여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대, 정경이, 다리에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있고 발견 당시 개천은 익사할 정도로 깊지 않았다.

고 박상구 동문은 지난 90년

야간강좌 총대의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에는 본교 졸업준비위원회로 선출되어 졸업준비까지 일을 해왔다.

이후 성환기계공업사에 취직해 기존 활동이 미미했던 노조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다 회사측과 마찰을 빚었다.

사망일인 지난 6일도 노조문제 동료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미루어 보아 사인에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신은 반월 산재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가 지난 10일 화장돼 오후 7시 본교 동우탐으로 옮겨져 추모행사를 가졌다.

아무리 등록금 합의사항이 맘에 안들어도 그렇지...

있는데, 복지안상정은 고사하고 그 성과나 의외에 대한 과별 분담비율이나 제대로 한 학과는 가문에 풍나듯.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다미 "아무리 등록금 합의사항이 맘에 안들어도 그렇지, 무관심의 팽배는 학생회 강화에 도움이 안돼요?"

문무관은 행사음

○ "도대체 문무관은 비오는날 행사 치루려고 세운

절전방법인가

○ "지금 음악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한 연등으로 뒤덮혀서 멋진(?) 광경을 이루고 있는데, 3천여명에 이르는 연등을 줄줄이 매달아 놓은 노력을 대단하지만 축제기간까지 계속 음악을 비출 연등중이 전구가 나가거나 장난에 의해 파손된 것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재미삼아 연등을 켜는 것인지 혹시 절전효과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보기가 꽤 민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나 들 거져가는 연등을 보며 한 학생 왈 "축제가 끝나 22일 차근차근 자연스레 등피기를 기대하고 이러시는 건 아니겠요"라며 안타까워하기도.

대구·경북총련 해오름식 전총련·민주정부 수립결의

제3기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의장=최희원·영남대 총학생회장)해오름식이 지난 8일 경주캠퍼스 학생 1백여명을 비롯한 대경총련소속 학생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남대 천마로에서 열렸다.

조계정(안동대 부총학생회장)은 사회시작된 이날 해오름식은 개회이선언, 김철이, 축사, 내빈소개, 푸평결의문 낭독, 폐회사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3기 대경총련 해오름을 선언한 최의장은 "총련을 강화해서 전총련을 건설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역설했다.

한편 대경총련 해오름식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의장=이경숙·경북대 총학생회장)해오름식이 오후4시 같은장소에서 유은숙(계명대 총학생부장)장의 사회로 대표자선사, 의장서명, 새내기 축하공연,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노래극, 결의문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구부 1승
춘계연맹전서

축구부는 전국춘계남·여대학 축구연맹전에 출전해 지난 11일 육사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단국대에 2대1로 승리했다.

후반전 초반까지 1대0으로 뒤져 불안하게 경기를 운영하던 본교는 전역을 가다듬어 박우삼(국교4)군의 중거리슛으로 동점을 만들고 차영민(경성1)군의 헤딩역전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예산경기 일정은 오늘(13일) 육사구장에서 경북산연대와 오는 15일 효창구장에서 조선대와, 19일 육사구장에서 충남대와 각각 경기를 치른다

경주캠퍼스 회계학과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세미나실에서 화해전사회와 여학생회 주관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무공해 비누판매를 실시한다.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7월1일까지 8박9일 동안 일본지역내 노인·아동복지시설 6곳에서 실습을 가진다.

에스까뜨릴 路

프로스트는 가지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시로 이야기했다. 인생은, 연습삼아
한번 살아보고 싶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걸어갈 길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도 나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오직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추후의 후회도 없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
나의 발걸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길—
그것을 개성이라 이야기해도 좋다.
어차피 개성이란 것이 내가 사는
이 시대의 본질일테니까...
다른 사람의 사는 방식을 존중하는 만큼
내가 사는 삶의 방식도 존중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는 만큼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도 경청해야겠다.
나에게 있어 이 세상의 구심점은 나 자신—
가장 나답게 살고싶다. 에스까뜨릴처럼...
지금, 너는 에스까뜨릴를 걷고 있다.

자기각력을 지켜가는 패션정장
ESCADRIILE

ESCADRIILE

ESCADRIILE

ESCADRIILE

ESCADRI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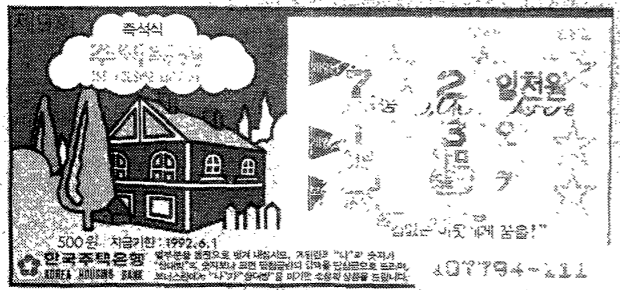
ESCADRIILE

미/술평 박불똥 '주택복권'

4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금호미술관에서는 박불똥의 개인전이 있었다. 이 전시를 본 사람이라면 필자가 왜 굳이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하필 '주택복권'이라는 심심한 작품을 선택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는지 의아해 할 것 같다.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몇점의 유화도 그려내었고 꼴라주 작품도 여러점인데 비해, 이 작품은 즉석식 주택복권을 작가의 아무런 덧붙임 없이 있는 그대로 확대 인화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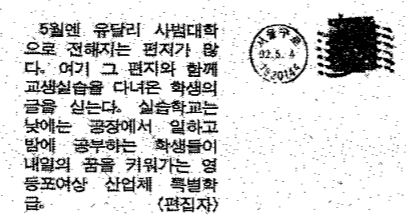
그런데도 작가는 이것을 작품이라고 걸어 놓았다. 말하자면 작가 자신이 창조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작가는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의 주장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화가답지 못한 방법을 쓰는가에 대한 일반인의 의구심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행위는,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의구심에 기반해 있다. 우선 이 작품은 화가의 행위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화가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주택복권을 그리거나 혹은 그것의 다중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것 자체가 이미 더 완벽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반대로 작가의 무력감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화가의 고백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화가의 고백이란 숨어 있을 뿐이며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즉석 복권의 여러가지 시각적 기호들, 정보들이다. 다시 이 정보들은 전면에 드러남을 통해서 손바닥만하고 일상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에서 충분히 크며, 들어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진다. 그것은 드디어 저 지하철역 쓰레터통에서부터 나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전모를 드러내 놓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감성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과 전시의 과정은 동시에 작가에 대한 즉석 복권의 승리, 창조에 대한 상상의 압도이다. 그러나 상상에 대한 작가의 미학적 패배는 상상의 선택과 전시 기지의 획득을 통해서 보장된다.



다음엔 작가의 의도를 좇아 상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기로 하자. '즉석식'이라는 말이 주택복권 행사 위에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밑으로는 동화책 그림 같은 숲속의 지렁이 그려져 있다. 즉석에서 집을 먹어 삼킬 수 있다는 뜻처럼 보인다. '즉석식 주택복권'이라는 글씨가 집위에 떠있는 구름 안에 박혀져 있어서 이 구름과 같은 이야기가 피상한 리얼리티를 띠어준다. 어차피 뜬구름이라는 걸까? 질 밀로는 5백원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에는 지갑기환이 적혀 있다. 5백원이라는 집은 지갑기환이니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알다시피 이 복권은 동전으로 쉽게 되어 있다. 역시 '알다시피'라는 매우 유치한 도박이다. 화부장을 보는 것과 한나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화부장들보다도 그 투기 강도가 높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도 그위에 '집없는 이웃에게 꿈을 하고는 느낌표까지 찍어 놓았다. 주택은행에서, 주택복권이 집없는 이웃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이라는 광고를 하려 한다는 의도를 알게해주는 것 이외에 이 멘트가 하는 역할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꿈'이라는 말을 이처럼 말 그대로의 뜻으로 쓰기도 힘든 일이 아닐까.

박불똥의 이 작품은 이렇게 시각적 기호들의 재배치, 재해석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반성을 유도한다. 필자의 설명이 다소 냉소적이고 표피적인 그림 읽기라면 여기에 독자의 독창적인 독해가 덧붙여져야만 할 것이다. 즉석복권과 같이 90년대 한국자본주의를 압축해 보여주는 모델도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박불똥이 우리에게 전장하는 대로 차분히 복권을 음미하는 것은 무엇 못지 않은 훌륭한 문화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작가의 미학적 패배는 관객이 작품을 잘 읽어 주는가 아닌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불똥은 이 작품에서 꼴라주를 버린 것 같지만, 그는 계속해서 역설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꼴라주적인 정신을 이 작품에서도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박 찬 경 (화가·미술평론가)



교생선생님께

선생님과 헤어져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선생님과 지냈던 지난 한달동안의 생활들이 저의 머릿속에 휘감겨 떠나질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항상 내일이 있음을 믿으며 열심히 생활하겠어요.

남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마음껏 애드리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복음하고 손뭉치고 발뭉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안계시네요. 이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매일매일 기억하시진 못하더라도 가끔씩은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 저의 웃는 얼굴을 잊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올 것 같진 않았는데 정전이 되니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학생 시절 마지막 교생선생님, 아마 오래오래 기억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 드릴 때마다 꼭꼭 담장수지는 못한다고 하셨죠? 늦게라도 답장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장실력이 없어 답장받지 못하고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만남"

편지를 쓰면 영망이 되거든요. 정말 선생님께 금강한 점도 많았고, 그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는데 막상 펜을 드니 그 많았던 말들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려나,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싶

러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항상 내일이 있음을 믿으며 생활할래요. 몸이 허약해 보였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저도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선생님, 저를 위해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이제 그만 펜을 놓아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정희 (영동포 여성 산업체 특별 학급 3학년 5반)

뜻해질 수 있는 범이듯 교사는 언제나 한걸음 먼저 내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다. 너희들이 이 다음에 장하게 자라 이 땅의 모든 모순을 태우고 어둠을 밝힐 큰불이 될 것을 믿듯이 나도 몸소 불꽃이 되어 너희를 같은 무한한 가능성에 몸담아 밀물을 만들어내는 교사가 될 것을 약속한다. 너희들과 처음 만난 날 함께 바라본 진달래, 개나리가 이제는 모두 자신의 무게를 거기에 던지고 있었구나. 하지만 얼마 후면 다시 뒤뜰에 봉숭아, 해바라기들이 열지

친구들에게

운동장이 끝나는 곳에 늘 강물냄새가 묻어 오곤 하던 너희들의 학교를 떠나 남산의 초목이 더욱 짙어질 내일이 되어서는 지도 벌써 일주일이지났구나. 이 아이들이 행광을 볼만한 가득하던 교실에서 목소리 높은 노래도 함께 부르고 시도 소리내어 읽으며 함께 보던 너희들과의 한달이 더욱 선명해진 5월의 하늘처럼 아직도 가슴 뜨겁다. 하루종일 어느 미성대엔가 앉아 열심히 땀흘린 피곤한 어깨를 하고도 선생님의 한마디를 놓칠까봐 머리를 흔들고, 눈을 더욱 크게 지켜 드던 너희들의 반짝임이 아직도 살아있는 표정으로 여전히 나를 뭉클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 꼭 다시 만나자꾸나.

너희들 앞에 서는 일은 정말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임을, 철저한 자기준비와 책임을 다 해야하는 일임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온통 나를 향하는 백여개의 눈동자, 자는 줄곧 나를 식은땀 솟게 만들었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가슴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교사가 책을 볼 때 학생들이 다다 공부를 하고, 교사가 불의를 타협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용감해질 수 있으며, 교사가 낮은 자리를 굽어 사랑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따

이 피어 나겠지. 다 못난 정만 흥건히 남겨둔 채 무더기 무더기 떨어져 선 너희들을 떠나면서 '회자정리니' '거자필방'이니 하는 공색한 인사말로 아쉬움을 대신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런 너희들의 그 건강한 모습과 꼭 만나고 싶구나. 우리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 꼭 한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인영. 이 승철 (사범대 국교과)

잡간 생각해봅시다

'대동제의 진정한 의미'

교정의 푸른하늘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싱그러워지는 오월, 얼마있었던 동약은 축제, 이른바 '대동제'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학의 축제가 점점 내용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 / 아마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대동제 행사내용이 '그저 그렇다'는 평계하에 축제기간을 아예 개인적인 휴가기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동제'라는 말은 글자풀이를 굳이 안해도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길래 대동제의 의미가 상실되어가고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영 맘에 들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간다고 개탄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여 / 혹시 그 본인(?)이 바로 '나'만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라도 남의집 불구경 그만하고 동약의 축제를 바로 당선이 직접 나서서 '대동'의 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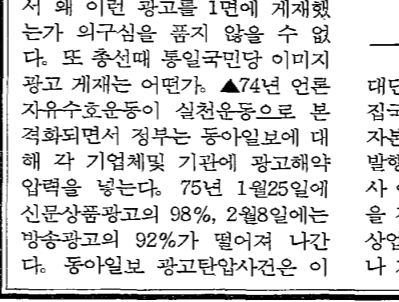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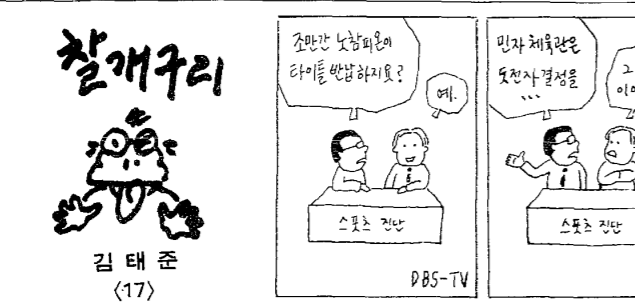
문화탐사

새로 나온 책

◇새책벌이 뜨면 푸른강이 보인다...심장에 새기는 이야기(1991, 녹두)의 저자 김재희씨가 최근 발표한 이 책은 번역의 과정속에서 하나의 씨앗이 되고자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가족·연

광고도 기사다

후 언론자유수호운동을 범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나 재정악화에 시달린 동아일보 경영부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 1백14명의 기자를 무더기 해고시킨다. 당시 해적기자중에는 현 한겨레 회장 송건호(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간신문사가 갖는 광고비의 압력은



나타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광고주의 압력을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 기사도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은 분명 진위적이지거나 비약이 아니다. 현실인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신문의 광고는 어떤가. '광고도 지면이다'라는 인식은 이미 89년 광고질서 회복운동때부터 있어왔고 이후 대학신문의 광고는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신문사 기획광고가 그것이고 광고계제를 둘러싼 학교·광고대행업체와의 마찰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외부광고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겨레를 포함한 일간지의 광고에 대한 이해가 이렇다면 건전광고 게재는 대학신문 편집방향의 하나가 되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사회개혁에 부응하는 대학신문이 젊은이들의 청춘을 즐길 자유가 있다고 외치겠는가. <炳>

이렇게 강의실 밖의 '사제지간'은 아름답습니다

5월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대학에서 사제지간은 계약관계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단회친 강의실 수업이 끝나면 각자 자기공간으로 돌아가 침묵하는, 스승과 제자간의 대화단절로 교수는 있되 스승이 없고 학생은 있되 제자가 없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를 들을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학생들의 터무니없는 고민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론 잔디밭에서 때론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로 아버지로 느껴지는 교수님, 친구로 아들딸로 느껴지는 학생. 이렇게 강의실 밖의 사제지간은 아름답습니다.

동대신문사

사제동행의 앞에서 정경계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린교과과 오홍석 교수와 제자 허은희 양